

한국불교학회(학회장 성운)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개최한 '불교와 4차산업' 국제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등 불교계 대표 스님들과 국내외 학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0여 대중이 운집했다.

한국불교학회 국제학술대회 불교와 4차산업

전국민, '4차 산업' 話頭 三昧 들다

12월 2~3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
AI · VR · IoT 대한 불교 해석 제시
사부대중 2000명 참여, 관심 높아

'고도의 인공지능 로봇은 해탈할 수 있을까', '가상현실은 실재하는 것인가' 등등. 이는 4차 산업 시대에 한번쯤은 생각해볼만 한 질문들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성큼 들어와 있는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이를 전법 포교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동국대 일원에서 '불교와 4차산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교학회 이사 법현 스님과 선우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 이어 학술대회는 △1주제 'AI로봇과 인간사회' △2주제 'IOT/스마트시티와 불교' △3주제 '4차산업기술의 불교철학적 해석' △4주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서의 전법포교' △5주제 'VR/AR을 이용한 불교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로 나눠 진행됐다.

첫째 날인 2일에는 1주제와 2주제, 해외학자 논문 3편이 3곳에서 발표됐다. 특히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모든 강의실이 만석으로 채워져 4차산업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확인됐다.

인공지능에 대한 불교적 고찰들

만해관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1주제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논의들이 이어졌다. 한성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영문번역위원은 '인공지능 로봇의 해탈 가능성'을 통해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해탈을 할 수 있는가는 불교 교리를 통해 분석했다.

한 위원은 4성제 중 두 번째인 집성제에서 붓다가 설한 '갈애(유애)'를 주목했다. 그는 불교의 유애 교설과 살아가는 동안 욕망을 쫓을 수 밖에 없다는 욕애(欲愛)는 인공지능 로봇이 결코 인간을 닮을 수 없다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봤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로봇의 상용화와 불교적인 인간 이해'에서 "선불교의 방식은 4차 산업시대의 도전형 인재가 등장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 가능하다"면서 "이제까지 평가 절하되었던 동양의 정신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선불교를 통해서 세계로 구현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일 스님은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선문답의 응용가능성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창조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일 스님은 현재의 챗봇으로는 실제 대화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있는 상황에 일일이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선문답의 파격성에서 그 해법이 있음을 제언했다.

스마트시티 공동체 어떻게 볼 것인가

만해관 모의법정서 진행된 2주제에서 스마트시티와 IoT를 불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기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IoT 시스템 인과율에 대한 불교논리학적 해석'을 통해 IoT의 구조를 분석하고 불교 사상으로 해석했다.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와 공동체의 변화'를 발표했다. 그는 스마트시티의 등장으로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전망하고 불교의 역할을 분석했다.

장재진 동명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부 교수는 '4차산업 기반의 불교건축 활용방안'에서 사찰건축의 미래상을 고찰했다.

장 교수는 "새로운 시대의 사찰은 IoT 기반의 스마트농업 활용공간으로 저비용, 친환경, 유기농, 모듈로 자급자족형 저장 및 유통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스마트 시티와 연계하는 다양한 기능이 부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4차산업 기술 작동원리, 불교 이론과 같다"

둘째날 동국대 만해관 모의법정 및 대강의실, 다향관 세미나실 등 3곳에서 동시에 진행된 세미나는 첫날과 같이 모든 세미나실이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채워졌다.

제3주제 '4차 산업기술의 불교철학적 해석' 세미나에서는 강형철 동국대 연구교수가 '가상현실을 통한 불교이론의 재검토'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강형철 연구교수는 "가상 현실이 생활 곳곳에서 도입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그동안 판단 기준인 '존재 자체'가 아닌 '인과 효력'에 근간한 불교적 인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인공지능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유식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인식 능력을 풀이했다.

4주제인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의 전법포교'에서는 니콜라스 존스 美알리바마대 교수가 '4차 산업 시대의 고통(fourth industrial dukka)'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4차 산업 기술로 인한 생활의 변화와 함께 근본적인 고통 해결 방안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제시했다.

니콜라스 교수는 "하지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늙지도 죽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이러한 생사, 자신의 연속성에 대한 갈망은 끝나지 않는다. 불교가 농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영적 화해를 제공했듯 그런 안내를 한번 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불교 연구풀 구축, 4차산업 시대 과제"



성운 스님 '불교와 4차산업' 학술대회 기조강연서 제안

한국불교학회가 12월 2일 개최한 '불교와 4차산업'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불교계의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사진〉은 종단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과 전문가 양성, 불교 전법 포교에서의 기술 활용방안 모색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성운 스님은 먼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로 '딥러닝'을 꼽으며 '딥러닝'은 상즉상입(相卽相入)의 연기관의 현대적인 발현임을 강조했다. 화엄 십현연기에서는 일체가 인드라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진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성운 스님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삶에 편리성을 가져다 주지만, 인간 가치의 혼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 소외, 양극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은 행복을 위해 이뤄져야 하며, 불교는 공동체 회복, 자비정신 구현 등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불교계의 대응으로 △종단차원의 연구기관 설립 △불교 빅데이터 구축 △4차산업 기술의 활용방안 모색 △전문 지도자 양성의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PT를 진행한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등 4차 산업시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대중들의 생각에 공감하며 함께 이를 극복하는데 불교계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제학술대회 이모저모



설정 큰스님 격려사, 각계 각층 축사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이 축사했다.



만찬까지 열기 이어져

양일간 200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 열기는 만찬까지 이어졌다. 식사제공부터 간식제공까지 큰 호평을 받았다.



4차 산업의 주제에 맞게 개회식에서는 AR · VR을 활용한 다원예술가 '아리스 김'의 공연이 선보이기도 했다.



SNS에 5000여회 리트윗 '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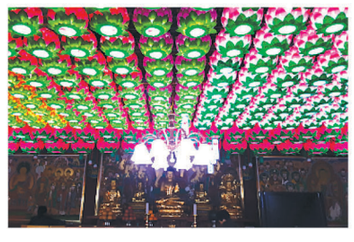
학술발표는 SNS를 통해서도 실시간 전송됐다. 이 횟수는 5000여건에 달했다. 한국불교학회는 이 열기를 모아 논문집을 낼 예정이다.

장엄불사 전문기업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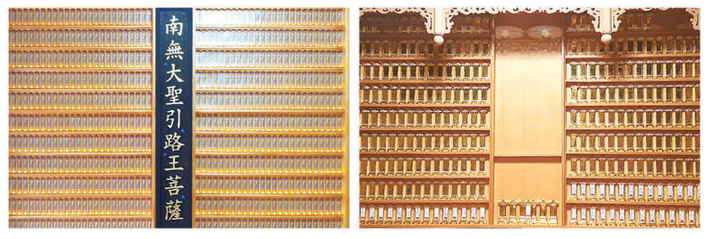
보련기획은 연등 자동승강장치, 장엄등설치, 인등, 위패, 원불전등 사찰장엄불사 전문기업입니다. 전문인력에 의한 책임시공, 철저한 품질관리와 사후관리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찰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공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과 신제품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연등설치공사(고정식)


천불전


인 등



위패



성취등

불사용품

www.boryeon.com

BORYEON 보련기획 | 010-5381-9355 / 031)526-2201~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전시판매장 : 정진(조계사 맞은 편) 02)722-5900 / 010-4117-3893